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중독 경향성과 사용동기: 성차를 중심으로*

신 한 섭[†] 신 나 영[‡]

경기대학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의 중독 위험과 사용동기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 SNS 사용동기, SNS 중독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만 13세-18세 청소년 277명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향성과 SNS 사용동기의 성차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SNS 사용동기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참여자들은 대면 설문을 통해 SNS 중독 경향성 척도와 SNS 사용동기 척도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SNS 중독 경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사교동기와 동조동기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학생에서는 대처동기가 SNS 중독 경향성을 유의하게 설명한 반면, 남학생에서는 동조동기가 중독의 위험을 높였다. 아울러 성별에 따라 동조동기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NS 중독과 관련된 SNS 사용동기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하며, SNS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성차를 고려한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SNS 중독, SNS 사용동기, 청소년, 성차

* 본 연구는 신한섭(2025)의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석사 졸업, E-mail: fgfg2486@naver.com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조교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031-249-9927, E-mail: shinny@kyonggi.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는 온라인상에서 타인과 관심사를 공유하며 의사소통하는 플랫폼을 일컫는다(Kuss & Griffiths, 2011). 우리나라 중학생의 74.7%, 고등학생의 77.4%가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23), 많은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의 상당 부분을 SNS 이용에 할애하고 있다(Galien, 2013). SNS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지나친 사용은 일상생활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SNS 중독은 SNS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학업 기능이나 직업 기능, 대인관계 기능 등이 손상된 상태를 일컫는다(Andreassen, 2015). Griffiths(2005)는 행위중독(behavior addiction)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6개 증상을 보고했는데, 현저성(salience), 기분 변화(mood change), 내성(tolerance), 금단(withdrawal), 갈등(conflict), 재발(relapse)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SNS 중독 상태에 있는 개인은 SNS 사용에 시간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할애하고(현저성), SNS 사용을 통해 기분을 변화시키려 하며(기분 변화), 만족감을 얻기 위해 SNS를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된다(내성). 또한 SNS 사용을 감소하거나 중단하면 금단 증상을 경험하고, 대인관계가 손상됨에도 불구하고 SNS를 중단하기 어려우며(갈등), SNS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재발). SNS 중독은 청소년기에 우울, 공격성, 또래관계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강선경, 최유진, 2023; 전지형, 김리원, 2016).

청소년기에는 쾌감과 즐거움을 주는 보상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최고조에 이르고 (Steinberg, 2010), 반응 억제나 행동 계획과 같은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여

(Arain et al., 2013) 중독 물질이나 행위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Casey et al., 2008).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은 2024년에 5.2%, 잠재적 위험군은 37.4%로 성인의 4.2%와 18.2%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SNS가 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되는데(Facebook Reports First Quarter, 2015; Jeong et al., 2016), 청소년은 모바일 기기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에 빈번하게 노출될 수 있어 SNS의 과도한 사용에 취약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이러한 발달적 취약성은 개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특성에 따라 SNS의 문제적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충동성, 신경성, 낮은 자존감, 우울, 물질사용, 또래 압력 등 개인의 심리적 및 환경적 특성이 청소년의 SNS 중독 위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ányai et al., 2017; Buja et al., 2018; Kim & Lim, 2020; Peris et al., 2020; Wang et al., 2018; Wu et al., 2013). 이러한 개인적 특성 중 하나로 성별 또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여러 연구들에서 SNS 중독은 물질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달리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Su et al., 2020).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SNS 과의존 비율이 일관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김지민 등, 2018; 박공주, 2019; 박지연 등, 2024; Bányai et al., 2017; Buja et al., 2018; Malo-Cerrato et al., 2018). 여성이 SNS 중독에 취약한 이유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여성은 SNS 사용을 통해 소속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반면, 남성은 게임 커뮤니티에서 더 큰 소속감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Leonhardt & Overa, 2021). 이러한 차이는

SNS를 사용하는 목적이나 이유, 즉 사용동기의 차이가 SNS 중독의 성차와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용동기(use motives)는 특정한 수단이나 대상을 사용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와 바람을 반영하며(Cox & Klinger, 2004), 중독의 시작과 유지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Kopetz et al., 2013). 사용동기는 물질 사용(substance use)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Cox와 Klinger(1988)는 알코올을 사용하는 이유를 동기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부정적 유인(incentive)을 제거하거나 긍정적 유인을 얻기 위해 알코올을 사용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알코올 사용의 동기 모델(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에서 사용동기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대처동기(coping motive), 재미를 추구하는 오락동기(entertainment motive),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사교동기(social motive), 대인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자 하는 동조동기(conformity motive)가 그것이다. 이들 4가지 동기는 스마트폰이나 SNS와 같은 미디어 사용동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으며(Sullivan & George, 2023), 쌍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한 SNS의 특성상 자신을 긍정적으로 드러내하고자 하는 자기표현동기(self-presentation motive),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정보동기(information motive) 등이 SNS 사용동기에 포함된다(Cooper et al., 1992; Cooper, 1994; Shin & Lim,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주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동기,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한 소일동기, 부정적인 기분을 전환하기 위한 대처동기, 자기표현동기 등으로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복 등, 2014; Throuvala et al., 2019; Tremolada et al.,

2022).

SNS 사용동기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이승미, 신나영, 2023). 예를 들어, 자기표현동기는 외향성과 자기에(narcissism)와 보다 관련되고, 소속되고자 하는 동기는 친화성이나 신경증과 보다 관련된다(Mancinelli & Salcuni, 2019). 이러한 성격적 특성 외에 성별 또한 SNS 사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문수지, 임영진, 202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은 기존의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SNS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반면, 남학생은 낭만적 관계 등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소속되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rtegal et al., 2019; Teppers et al.,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타인들로부터 자기가치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SNS에 관심을 두는 반면, 남학생은 재미 추구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 Felice et al., 2022).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동기의 성차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희복 등(2014)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표현동기, 정보동기, 사교동기, 소일동기 등 4개 동기의 성차를 분석하였는데, 자기표현동기를 제외한 3개 동기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동기 수준이 높았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SNS 과의존과 SNS 사용동기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는 SNS 과의존과 관련된 SNS 사용동기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농촌지역 러시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은 의사소통과 소속감을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것이 중독 위험을 높이는 반면, 남학생은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독 위험을 높였다(Gavrilova et al., 2018). 이러한 성차는 비

단 SNS 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에서도 보고 된 바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연구에서 남성은 자기정체성 및 동조동기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가장 강력히 예측한 반면, 여성은 대처동기가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Chen et al., 2017).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SNS 사용동기와 SNS 중독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문화적 배경은 SNS 사용특성이나 정신건강과의 관계 등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Lee et al., 2016; Yin et al., 2019),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또래관계의 중요성, SNS 플랫폼 사용방식 등이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SNS 사용 관련 성차 또한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향성과 SNS 사용동기에서 성차를 조사하고, 성별에 따라 SNS 중독 경향성을 예측하는 사용동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을 것이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관계 유지를 위한 동기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SNS 중독을 예측하는 사용동기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탐색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대전 지역에 위치한 1개 중학교와 2개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는 학교 대표자인 교장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진행되었고 연구 개시 전에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연구절차와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설문에 앞서 연구 설명문을 읽은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 한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성별과 연령 외에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설문에 참여한 300명 중 응답이 불성실한 23명을 제외한 277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중학생이 104명(37.5%), 고등학생이 173명(62.5%)이었고, 전체 평균 연령(표준편차)은 16.2(1.2)세 이었다. 남학생이 135명(48.7%), 여학생이 142명(51.3%)이었고, 평균 연령(표준편차)은 남학생이 16.2(1.3)세, 여학생이 16.2(1.1)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0.19, p = .85$).

측정도구

SNS 중독 경향성 척도

청소년들의 SNS 중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소영과 김종남(201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SNS 중독 경향성 척도(SNS Addiction Proneness, SNSAP)를 사용하였다.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4점 리커트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일상생활 장애 및 조절 실패(예: SNS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 또는 업무시간에 잔다), 몰입 및 내성(예: SNS를 생각하거나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부정정서 회피(예: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예: SNS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 외롭거나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한다) 등 4개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소영과 김종남(2014)의 연구에서 총점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 이었다.

SNS 사용동기 척도

SNS 사용동기는 Shin과 Lim(2018)이 개발하고 Lim(2023)이 개정한 SNS 사용동기 척도(Social Network Site Use Motives Scale-Revised, SUMS-R)를 사용했다.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5점 리커트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고양동기, 소일동기, 사교동기, 동조동기, 대처동기, 정보동기, 장점표현동기, 단점은폐동기 등 8가지 동기를 측정한다. 사교동기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예: SNS를 사용하는 것은 친한 사람의 생활을 알기 위함이다), 동조동기는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기 위해(예: 내가 SNS를 사용하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고양동기는 긍정정서를 고양시키기 위해(예: SNS에 접속하면 재미있다), 정보동기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예: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대처동기는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예: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SNS에 접속한다), 소일동기는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 장점표현동기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예: SNS를 사용하면 나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다), 단점은폐동기는 자신의 단점을 숨기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예: SNS를 사용하면 나의 결점을 감출 수 있다). Lim(2023) 연구에서 각 사용동기의 내적 합치도는 고양동기 .84, 소일동기 .90, 사교동

기 .85, 동조동기 .92, 대처동기 .90, 정보동기 .78, 장점표현동기 .91, 단점은폐동기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고양동기 .86, 소일동기 .87, 사교동기 .82, 동조동기 .91, 대처동기 .91, 정보동기 .86, 장점표현동기 .92, 단점표현동기 .9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분석방법

모든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을 0, 여학생을 1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SNS 중독 경향성과 연령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나 SNS 중독 경향성의 성차는 연령을 통제한 후 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SNS 사용동기의 성차는 독립 t -검증을 사용해 분석하였고, 사용동기들 간 높은 상관을 고려해 Bonferroni correction에 기초해 통계적 유의성(p)의 기준을 .006 미만($0.05 \div 8 = .0063$)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 간 상관

<표 1>에 SNS 중독 경향성과 SNS 사용동기 간 Pearson 상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별은 SNS 중독 경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3, p < .001$). 성별과 SNS 사용동기 간 상관계수는 .10~.22 이었고, 대처동기, 사교동기, 동조동기, 소일동기 등과 성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NS 중독

표 1. SNS 중독 경향성과 SNS 사용동기의 상관분석 결과(N=277)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									
2. 연령	.01	-								
3. SNS 중독 경향성	.33**	.54**	-							
4. 고양동기	.10	-.12	.28**	-						
5. 대처동기	.15*	-.04	.43**	.49**	-					
6. 사교동기	.18*	-.03	.36**	.54**	.49**	-				
7. 동조동기	.22**	-.03	.37**	.34**	.65**	.64**	-			
8. 소일동기	.16*	-.04	.40**	.66**	.64**	.53**	.49**	-		
9. 정보동기	.11	-.15	.28**	.55**	.42**	.46**	.28**	.51**	-	
10. 장점표현동기	.12	-.01	.35**	.44**	.50**	.64**	.45**	.43**	.42**	-
11. 단점은폐동기	.08	.01	.31**	.29**	.62**	.46**	.62**	.36**	.26**	.64**

* $p < .05$, ** $p < .001$

경향성과 SNS 사용동기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고 .28~.43 이었다. 각 사용동기들 간 상관계수 또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고 상관계수는 .26~.66 이었다.

SNS 중독 경향성과 SNS 사용동기의 성차

<표 2>에 SNS 중독 경향성과 SNS 사용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평균 수준이 가장 높은 동기는 고양동기였고, 가장 낮은 동기는 동조동기였다. 연령을 통제한 후 SNS 중독 경향성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SNS 중독 경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_{1,274} = 46.40, p < .001$). SNS 사용동기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교동기($t_{275} = -3.08, p = .002$)와 동조동기($t_{275} = -3.73, p < .001$)가 유의하게 높았다. 다른 사용

동기에서는 성차가 통계적 유의수준(.006)에 이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과 SNS 사용동기 간의 관계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인 SNS 사용동기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변인들의 분산팽창계수(VIF)는 1.63~2.76 범위였고 공차한계(tolerance)는 .36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표준화 잔차의 분포와 잔차-예측값 산점도를 통해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라 SNS 중독경향성을 설명하는 SNS 사용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남녀를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여학생의 경우, 대처동기만이 SNS 중

<표 2> SNS 중독경향성 및 사용동기의 기술통계 및 성차

변수명	전체(N=277)		남성(N=135)		여성(N=142)		F or t
	M	SD	M	SD	M	SD	
SNS 중독 경향성	24.5	2.6	23.7	2.5	25.3	2.4	46.40**
SNS 사용동기							
고양동기	16.9	3.7	16.5	3.6	17.2	3.8	-1.68
대처동기	11.8	4.8	11.1	4.5	12.5	4.9	-2.50
사교동기	13.7	4.3	12.9	4.0	14.4	4.4	-3.08*
동조동기	10.1	4.4	9.1	3.8	11.0	4.7	-3.73**
소일동기	15.4	4.8	14.7	4.5	16.2	4.9	-2.61
정보동기	15.7	4.2	15.2	4.1	16.2	4.3	-1.89
장점표현동기	12.2	4.8	11.1	4.8	12.2	4.8	-1.91
단점은폐동기	11.6	4.8	8.7	3.8	9.4	4.4	-1.46

* $p < .006$, ** $p < .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표 3> 성별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과 SNS 사용동기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R ²	B	S.E	β	t
남학생	고양동기	.56	-.004	.084	-.005	-.043
	대처동기		-.012	.070	-.21	-.164
	사교동기		-.026	.068	-.042	-.385
	동조동기		.222	.082	.340	2.706**
	소일동기		.100	.067	.184	1.505
	정보동기		.039	.056	.065	.699
	장점표현동기		.072	.053	.141	1.360
	단점은폐동기		.048	.071	.073	.670
여학생	고양동기	.46	-.085	.066	-.137	-1.279
	대처동기		.149	.061	.309	2.434*
	사교동기		.082	.078	.152	1.057
	동조동기		-.088	.065	-.173	-1.355
	소일동기		.097	.057	.202	1.699
	정보동기		.017	.058	.031	.295
	장점표현동기		.072	.069	.145	1.036
	단점은폐동기		-.044	.072	-.082	-.613

* $p < .05$, ** $p < .001$; B, 비표준화 회귀계수

독 경향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 = .15, t = 2.43, p = .02$), 남학생에서는 동조동기만이 SNS 중독 경향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 = .22, t = 2.71, p = .008$).

성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됨에 따라 SNS 사용동기와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성별, 사용동기, 성별과 SNS 사용동기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조동기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 = -.31, t = -2.95, p = .003$). 즉, 동조동기는 남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과 정적으로 관련된

반면, 여학생에서는 연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대처동기와 성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경향성(tendency)이 관찰되었다($B = .16, t = 1.72, p = .088$). 회귀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향성과 SNS 사용동기의 성차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SNS 중독 경향

<표 4> SNS 중독경향성과 SNS 사용동기의 관계에 있어 성별의 조절효과

변인	R^2	B	$S.E$	β	t	p
성별	.58	3.516	1.32	.69	2.67	.008**
고양동기		-.004	.085	-.005	-.042	.966
대처동기		-.012	.071	-.022	-.162	.872
사교동기		-.026	.069	.044	-.378	.706
동조동기		.222	.083	.379	2.66	.008**
소일동기		.100	.068	.188	1.48	.140
정보동기		.039	.057	.065	.687	.492
장점표현동기		.072	.054	.136	1.34	.182
단점은폐동기		.048	.072	.077	-.659	.511
성별*고양동기		-.081	.107	-.288	-.757	.450
성별*대처동기		.160	.093	.451	1.72	.088
성별*사교동기		.109	.103	.335	1.05	.294
성별*동조동기		-.310	.105	-.783	-2.95	.003
성별*소일동기		-.003	.088	-.011	-.036	.971
성별*정보동기		-.022	.081	-.075	-.273	.785
성별*장점표현동기		.000	.087	-.001	-.003	.998
성별*단점은폐동기		-.092	.101	-.204	-.906	.366

** $p < .001$; B, 비표준화 회귀계수

성을 설명하는 SNS 사용동기가 다른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SNS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았고 사교동기와 동조동기 수준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 SNS 중독 경향성을 설명하는 사용동기가 달랐는데, 여학생은 대처동기가 SNS 과의존을 유의하게 설명한 반면, 남학생은 동조동기가 SNS 과의존을 높였다. 아울러 성별은 동조동기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SNS 중독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SNS 과의존 위험이 높다는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지민 등, 2018; 박공주, 2019; 박지연 등, 2024; Bányaí et al., 2017; Buja et al., 2018; Malo-Cerrato et al., 2018; Su et al., 2020).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남성은 인터넷 콘텐츠 중개임에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반면, 여성은 소셜 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Varchetta et al., 2024). 새로운 정보기술의 지속적 사용을 설명하는 이론인 기술 수용 및 사용에 대한 통합 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에 따르면, 남성은 기술 사용을 통해 성과 향상을 기대하면 그 기술을 보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지지와 같은 사회적 맥락에 보다 영향을 받는다(Venkatesh et al., 2003). 즉, 여성은 중요한 타인들이 기술의 사용을 격려하고 지지하면 그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높을 수 있다. SNS는 사회적 관계와 상호 피드백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기술이다. 특히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청소년기에 또래의 SNS 사용과 초대, 피드

백 등 사회적 영향은 여자 청소년의 빈번한 SNS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사교동기와 동조동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사교동기와 동조동기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동기로서, 여자 청소년이 관계를 유지하거나 관계에 소속되기 위해 SNS에 접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학생의 높은 사교동기는 여성이 관계 유지를 위해 SNS를 사용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Pertegal et al., 2019; Sheldon, 2008; Teppers et al., 2014). 반면, 여학생에서 동조동기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남성들이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자 하는 동기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불일치한다(Pertegal et al., 2019; Teppers et al., 2014). 연구에서 사용된 SNS 플랫폼의 차이, 측정도구의 차이,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NS 중독 경향성과 연관된 SNS 사용동기는 남녀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여학생에서 SNS 중독 경향성을 설명하는 사용동기는 대처동기였다. 즉, 여학생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면 SNS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여성의 대처동기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가장 강력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Chen et al., 2017), 여성이 부정적인 기분의 전환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중독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Varchetta et al., 2024). 정서 조절의 어려움은 SNS와 온라인 게임 등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Giordano et al., 2023; Kim & Lim, 2020).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SNS 과의존이 정

서 조절을 목적으로 한 SNS 사용과 가장 강력히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남학생의 경우, SNS 중독 경향성을 설명하는 사용동기는 동조동기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사회적 압력 하에서 집단에 소속되고 거부되지 않기 위해 SNS를 사용하면 중독될 위험이 높아졌다. 이는 남성의 동조동기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가장 강력히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hen et al., 2017). 아울러 본 연구에서 동조동기는 남학생에서 중독 경향성과 유의한 관련을 보인 반면, 여학생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별에 따라 SNS 중독의 동기적 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남학생의 경우 동조동기가 SNS 중독 경향성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또래 압력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특히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또래의 승인과 수용을 추구하며 또래 압력의 영향에 보다 취약할 수 있다(McCoy et al., 2019). 또래 압력은 청소년의 SNS 중독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또래 압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소외되지 않기 위해 SNS에 과의존 할 수 있다(Kim & Lim, 2020).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 압력의 영향에 취약한 청소년 시기에 남자 청소년의 SNS 과의존이 또래의 수용과 소속을 목적으로 한 SNS 사용과 가장 강력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사용동기 중 고양동기의 평균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중독 경향성과 관련이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청소년들이 SNS를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양동기가 SNS의 문제적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종합해볼 때,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이 SNS 중독에 보다 취약하며 특히 기분 조절을 위해 SNS를 사용하면 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남자 청소년은 SNS 중독에 보다 덜 취약하지만 또래와의 동조를 위해 SNS를 사용하면 중독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에서는 부정정서와 같은 내적 요인이 SNS 중독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인 반면, 남자 청소년에서는 또래 압력과 같은 외적 요인이 SNS 중독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SNS 중독 예방 및 치료에 있어 성별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여자 청소년은 정서적 지원이나 정서 조절 등을 초점으로 하는 개입 프로그램이 SNS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남자 청소년은 SNS 사용에 있어 또래관계를 올바르게 확립하고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청소년기에 SNS 중독 위험과 SNS 사용동기에서 성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예방적 개입이 청소년의 건강한 SNS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을 수집한 지역이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청소년 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기보고식 척도만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이 중독 정도를 축소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SNS 사용에 있어 성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예: 우울,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SNS 플랫폼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SNS 사용 맥락은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상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메신저는 사회적 동기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반면, 짧은 영상 중심의 틱톡이나 유튜브는 소일동기나 고양동기가 보다 강하게 연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성차는 참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의 차이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플랫폼에 따라 기능과 목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플랫폼의 유형을 구분해 SNS 사용동기와 중독 경향성을 조사하는 것이 성차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민, 황용재, 김창겸, 박은주, 김진옥 (2018).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고통감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5(4), 21-4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99&mPid=74&pageIndex=2&bbsSeqNo=79&nttSeqNo=3173672&searchOpt=ALL&searchTxt=>
- 문수지, 임영진 (2025). 소셜미디어 중독의 성차: 소셜미디어 사용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0(2), 157-171.
- 박공주 (2019).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9(8), 170-179.
- 박지연, 김정민, 박초희, 노현진 (2024).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체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 명확성과 사회비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40(1), 261-279.
- 여성가족부 (2023). 2023 청소년백서 최종. 여성가족부, 98-99.
- 이승미, 신나영 (2023).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 SNS 사용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8(3), 315-328.
- 이희복, 김대환, 최지윤, 신명희 (2014). 청소년의 SNS 이용특성과 SNS 중독경향성 연구: 경기도와 강원도 중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중학생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6(1), 365-391.
- 정소영, 김종남 (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47-166.
- 조진행, 송원영 (2020).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및 성별의 매개된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8(1), 493-514.
- Andreassen, C. S. (2015). Online social network site addiction: A comprehensive review. *Current Addiction Reports*, 2, 175 - 184.
- Arain, M., Haque, M., Johal, L., Mathur, P., Nel, W., Rais, A., ... & Sharma, S. (2013). Maturation of the adolescent brain. *Neuropsychiatric Disease and Treatment*, 9, 449-461.
- Bányai, F., Zsila, Á., Király, O., Maraz, A., Elekes, Z., Griffiths, M. D., ... & Demetrovics, Z. (2017). Problematic social media use: Results from a large-scale nationally representative adolescent sample. *PLOS ONE*, 12(1), e0169839.
- Buja, A., Gallimberti, L., Chindamo, S., Lion, C., Terraneo, A., Rivera, M., ... & Baldo, V.

- (2018). Problematic social networking site usage and substance use by young adolescents. *BMC Pediatrics*, 18(1), 367.
- Casey, B. J., Getz, S., & Galvan, A. (2008). The adolescent brain. *Developmental Review*, 28(1), 62-77.
- Chen, C., Zhang, K. Z., Gong, X., Zhao, S. J., Lee, M. K., & Liang, L. (2017). Examining the effects of motives and gender differences on smartphone addic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5, 891-902.
- Cooper, M. L. (1994).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 Windle, M.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ree-dimensional measure of drinking motives. *Psychological Assessment*, 4, 123-132.
- Facebook Reports First Quarter 2015 (2015). Retrieved from *Facebook Investor Relations* website: <http://investor.fb.com/releasedetail.cfm?ReleaseID=908022>.
- Galien. V. A. R. (2013). The Impact of Facebook and other social networking sites on adolescents. *Cyberpsychology & Behavior*, 12(3), 341-344.
- Gavrilova, T. A., Korshunova, N. L., Markova, O. V., Slinkova, T. V., A Gavrilova, T., L Korshunova, N., ... & V Slinkova, T. (2018). Gender aspects of internet-addiction and social networking motives in rural high-school students. In S. K. Lo(Ed.), Education environment for the information age. *European Proceedings of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46, 319-325.
- Giordano, A. L., Schmit, M. K., & McCall, J. (2023). Exploring adolescent social media and internet gaming addiction: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Addictions & Offender Counseling*, 44(1), 69-80.
- Griffiths, M. D. (2005). A “components” model of addiction with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Journal of Substance Use*, 10, 191-197.
- Jeong, S. H., Kim, H., Yum, J. Y., & Hwang, Y. (2016). What type of content are smartphone users addicted to?: SNS vs. gam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4, 10-17.
- Kim, S. J., & Lim, Y. J. (2021). Peer pressure and SNS Addiction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SNS-use motives.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1), 23-33.
- Klinger, E., & Cox, W. M. (2004). Motivation and the theory of current concerns. *Handbook of motivational counseling: Concepts, approaches, and assessment*. John Wiley & Sons.
- Köpetz, C. E., Lejuez, C. W., Wiers, R. W., & Kruglanski, A. W. (2013).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in addiction: A call for converg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8(1), 3-24.
-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9), 3528-3552.
- Leonhardt, M., & Overå, S. (2021). Are there

- differences in video gaming and use of social media among boys and girls? - A mixed methods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1), 6085.
- Lim, Y.-J. (2023).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ocial network site use motives scale-revised. *Psychiatry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33(4), 309 - 315.
- McCoy, S. S., Dimler, L. M., Samuels, D. V., & Natsuaki, M. N. (2019). Adolescent susceptibility to deviant peer pressure: Does gender matter?. *Adolescent Research Review*, 4(1), 59-71.
- Malo-Cerrato, S., Martín-Perpiñá, M. D. L. M., & Viñas-Poch, F. (2018). Excessive use of social networks: Psychosocial profile of Spanish adolescents. *Comunicar: Media Education Research Journal*, 26(56), 101-109.
- Peris, M., De la Barrera, U., Schoeps, K., & Montoya-Castilla, I. (2020). Psychological risk factors that predict social networking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2), 4598.
- Pertegal, M.-Á., Oliva, A., & Rodríguez-Meirinhos, A. (201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ale of Motives for Using Social Networking Sites (SMU-SNS) for adolescents and youths. *PLOS ONE*, 14(12), e0225781.
- Sheldon, P. (2008). Student favorite: Facebook and motives for its use. *Southwestern Mass Communication Journal*, 23(2), 39-53.
- Shin, N. Y., & Lim, Y. J.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network site use motives scale for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36(8), 808-815.
- Steinberg, L. (2010). A dual systems model of adolescent risk taking.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Developmental Psychobiology*, 52(3), 216-224.
- Su, W., Han, X., Yu, H., Wu, Y., & Potenza, M. N. (2020). Do men become addicted to internet gaming and women to social media? A meta-analysis examining gender-related differences in specific internet addic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13, 106480.
- Sullivan, B. M., & George, A. (2023). The association of motives with problematic smartphone use: A systematic review. *Cyberpsychology*, 17(1), 2.
- Teppers, E., Luyckx, K., Klimstra, T. A., & Goossens, L. (2014). Loneliness and Facebook motives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inquiry into directionality of effect. *Journal of Adolescence*, 37(5), 691-699.
- Throuvala, M. A., Griffiths, M. D., Rennoldson, M., & Kuss, D. J. (2019). Motivational processes and dysfunctional mechanisms of social media use among adolescents: A qualitative focus group stud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3, 164-175.
- Tremolada, M., Silingardi, L., & Taverna, L. (2022). Social networking in adolescents: Time, type and motives of using, social desirability, and communication cho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4), 2418.
- Varchetta, M., Tagliaferri, G., Mari, E., Quaglieri,

- A., Cricenti, C., Giannini, A. M., & Martí-Vilar, M. (2024). Exploring gender differences in internet addiction and psychological factors: A study in a Spanish sample. *Brain Sciences*, 14(10), 1037.
- Venkatesh, V., Morris, M. G., Davis, G. B., & Davis, F. D. (2003).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27(3), 425-478.
- Wang, P., Wang, X., Wu, Y., Xie, X., Wang, X., Zhao, F., ... & Lei, L. (2018). Social networking sites addiction and adolescent depressio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ruminat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7, 162-167.
- Wu, A. M., Cheung, V. I., Ku, L., & Hung, E. P. (2013). Psychological risk factors of addiction to social networking sites among Chinese smartphone user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2(3), 160-166.
- 1차원고접수 : 2025. 11. 05.
심사통과접수 : 2025. 12. 20.
최종원고접수 : 2025. 12. 30.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Media Addiction Tendencies and Social Media Use Motives in Korean Adolescents

Shin HanSeop Na Young Shin

Kyonggi University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ddiction and the SNS use motives have been known to differ by gender. However, no previous study has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SNS use motives, and SNS addiction in Korean adolescents. This study investigated gender differences in SNS addiction tendencies and SNS use motives among 277 adolescents aged 13 to 18, and further analyzed which SNS use motives predicted SNS addiction tendency in girls and boys. Participants completed the SNS Addiction Proneness scale (SNSAP) and the SNS Use Motives Scale-Revised (SUMS-R). It was found that girls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SNS addiction tendencies than boys, and also scored significantly higher in social motive and conformity motive. Additionally, The conformity motive significantly predicted SNS addiction tendencies in boys, while the coping motive significantly explained addiction tendencies in girls.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ormity motives and SNS addiction proneness varied by gend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oth SNS addiction and SNS use motives may differ by gender among Korean adolescents, indicating the need for gender-specific intervention to prevent and treat SNS addiction.

Key words : social media addiction, social media use motives, adolescents, gender